

존웨이인 공항, 새로운 현대 미술 전시 공개: 4X4X15, 바이 스미스 중앙 홀 갤러리

(샌타애나, 캘리포니아) – 작년에 존웨이인 공항(JWA)은 추상, 비재현 전시회를 열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남부 전역의 미술가들에게 오리지널 현대 미술품을 출품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바이 스미스 중앙 홀 갤러리](#)에서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열립니다.

"매년 존웨이인 공항을 통하여 여행하는 수백만 명의 여행자들과 함께, 공항은 다른 곳과는 달리 독특한 장소를 만들어서 지역 예술인들의 창조적 작품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터미널은 토마스 F. 라일리 터미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수한 고객 경험을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러한 예술가들을 보여주는 미학적 배경을 선사합니다." 라고 공항 책임관 살린 레이놀즈가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의 임페리얼, 킨,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리버사이드, 산타 바버라, 산 버나디노, 샌디에고, 벤추라 등 8곳의 카운티에 살고 있는 모든 예술인들은 이 전시회 참가 자격이 있었습니다. 존웨이인 공항 예술위원회는 남부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미술가들 15명의 회화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예술위원 각자는 형상, 색깔, 투시, 질감을 고려하는 독특한 관점으로 심사하고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림은 유리 진열장에서 전시되며, 터미널 A의 출발층(보안검색대 통과) 2번에서 5번 게이트 사이와 터미널 C의 18번에서 21번 게이트 사이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존웨이인 공항 미술 프로그램은 사업과 레저 여행객들을 위해 세계 수준의 작품을 선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곳](#)에 클릭하세요. 전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존웨이인 공항 미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제프리 프리시와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Jfrisch@ocair.com.